

손명수 차관, “코로나 유입 최소화 위한 입국자 관리 철저” 강조 6일 인천공항 방문…입국자 관리현장 점검 및 방역종사자 격려

-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은 8월 6일(목)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종사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했다.
- 손 차관은 우선 인천공항에서의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방역당국과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국내발생 사례는 감소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실제 입국자가 항공기 도착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교통편을 탑승하기까지의 입국全过程를 따라가며, 방역망과 동선 관리 등에 빈틈이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 종사자들의 그간의 헌신과 성과를 치하하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공항 방역망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2020. 8. 6.

국토교통부 대변인